



상전 금지마을 유채꽃

꽃들이 만들어낸 황금빛 · 핑크빛 향연

전국에서 가장 늦게 피는 벚꽃
벚꽃엔딩 장소로
유명한 진안에
벚꽃이 지고 다시 핑크빛
황금빛 꽃들의 향연으로
상춘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코로나로부터 지친 몸과 마음
코로나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진안으로
봄꽃 여행을 떠나보자!

원연장 꽃잔디 동산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한달간 운영

‘원연장 꽃잔디 동산’은 축구장 24개를 합친 면적과 같은 약 18만여㎡ 규모로 매년 4~5월이면 분홍빛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 화려한 잔디를 볼 수 있는 곳이다. 20여년 전부터 30ha에 이르는 동산에 꽃잔디를 가꾸어 진안의 명품 꽃동산이 됐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축제는 취소됐지만 철저한 방역 속 자체 개장해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한달간 운영 중이다. 올해는 꽃잔디 동산 곳곳에서 명화를 전시해 산책하며 명화를 관람할 수 있으며 야외 웨딩, 드림캐쳐 포토존 나무에 매달린 원숭이 인형 등 색다른 볼거리로 방문객들의 눈길을 더욱 끌고 있다. 곳곳에 헛터도 마련돼 편안하게 휴식하며 힐링할 수 있는 봄꽃 명소이다.

유채꽃 향기 가득, 금지마을 유채꽃 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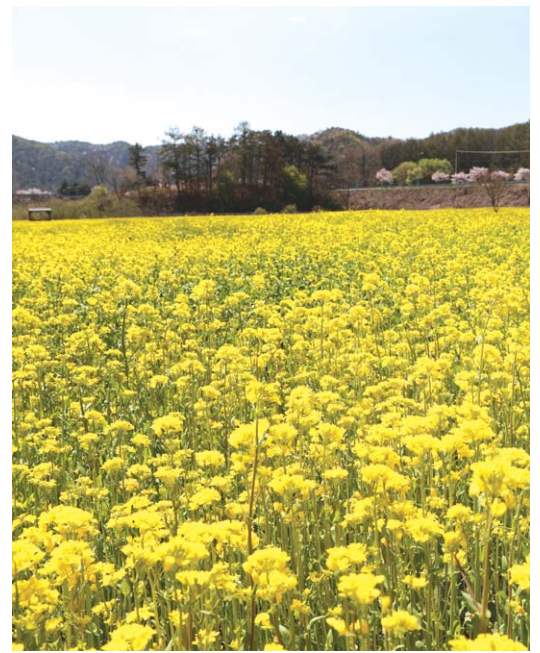
상전 금지마을 주민들이 심은 금지마을 유채꽃 동산은 3만 3,000여㎡에 유채꽃이 만개해 유채꽃의 싱그러움 향기와 용담호, 월포대교가 어우러져 그림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코로나로 인해 축제가 취소되고 관광객들의 발길은 줄었지만 유채꽃은 여전히 아름답다. 대신 더 많은 내외와 벌들이 화분을 옮겨가고 꿀을 모으는 것 같다. 마을 주민들이 맑아 흘러 심은 유채꽃이 예쁘고 소담하게 피어있다. 상전 금지마을 유채꽃은 4월 중순

원연장 꽃잔디 동산 곳곳 명화 관람
상전 금지마을 유채꽃밭 향기에 심취
용담 호반도로서 진분홍 철쭉 구경
마이산 산약초타운도 봄나들이에 제격

부터 5월 중순까지 황금빛 물결이 펼쳐진다.

용담호반 철쭉길

거대한 용담호를 에두르는 64.4km의 호반도로는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이다. 용담호 벚꽃 드라이브도 유명하지만 벚꽃이 진 후에는 7만여 그루의 철쭉이 앞 다퉈 꽃망울을 터뜨려 진분홍빛 호수 꽃길을 이룬다. 꽃놀이만으로 아쉽다면 봄 나들이 종착지로 마이산 남부 탐영제와 마이산 북부 산약초타운을 추천한다. 마이산 남부 탐영제는 호수에 드리워진 조명의 불빛이 한쪽의 멋진 그림을 연출한다. 또한 자연생태체험 명소인 산약초타운은 달, 별, 은하수 육토피 등 밤하늘이 산약초타운으로 내려와 자연과 어우러지는 멋진 별빛세상이 펼쳐져 또 다른 경관을 관람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기자



용담호반 철쭉길

원연장 꽃잔디

